

성폭력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만들기

수업중 하시는 성폭력적 발언들
더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..



수업시간에 듣게 되는 불쾌한 얘기들...
분위기를 좋게 한다며, 또는 수업 이해를 돕는다며,
혹은 아무 상관없이 내뱉는 말들...

여성은 집에나 있어야 한다가,
어차피 '시집' 이나 갈 여학생이 점점 늘어나서 걱정이라나.
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'불편하게' 노골적인 얘기들..
심지어 교재가 비싸면 남학생들은 막노동하고,
여학생들은 자기한테 찾아와서 몸을 팔라는 이야기까지...

강단에 선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,
학생이기에 그냥 웃어넘기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..

그러나, 이러한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.

수업시간에 벌어지는 성차별적이거나 성폭력적인 발언들에 대한
'교수 성폭력 토론회' 를 5월 22일에 하고자 합니다.

수업중에 듣게 되는 이러한 불쾌한 발언들에 대한 사례 신고를 받습니다.

▷ 사례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서만 사용되며, 이외의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.

▷ 몇 년도 몇 학기 어떤 수업이었는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

▷ 메일 feminist@yonsei.ac.kr과 언니네(www.unninet.co.kr)의 연세 교수 성폭력 사례집
커뮤니티(익명게시판)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/파/만/파 15대 총여학생회

www.yonsei.ac.kr/~ysfem e-mail: feminist@yonsei.ac.kr ☎: 2123-3645